

교육

| 성 양 경 |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(syk33@krivet.re.kr)

▣ HRD 및 교육정책 동향

| HRD정책 동향 |

□ 제2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개최(2007년 10월 11일)

- 주요 내용
 -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세칙 제정(분기별 1회 정례화,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 등)
 -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부와 교육부 협력 추진(학교 예술교육 내 실화, 예술영재 발굴 및 육성 시스템 구축, 소외계층 지원 확대 등)
 - Global HR Forum 2007 개최(2007. 10. 23.~25.) 보고
 - 2006 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보고
 -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회(SC)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처 TF 구성

□ ‘글로벌 인적자원포럼(Global HR Forum)’ 2007 개최(2007년 10월 23~25일)

- 제2회 글로벌 인적자원포럼이 ‘차세대를 위한 인적자원전략(HR Solutions for the Next Generation)’ 을 주제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됨.
 - 글로벌 인적자원포럼은 인적자원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지구촌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는 장으로, 정부 고위인사 및 국제기구 관계자, 글로벌 기업 CEO, 세계 유수대학 총장 등 총 35개국의 약 150여 명의 연사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됨.
- 주요 내용
 - 리차드 홀부르크 전 UN주재 미국대사를 비롯, 벤 버바이엔 브리티시 텔레콤 회장, 제롬 글랜 UN미래포럼 회장, 프란시스 후쿠야마 존스홉킨스대학 교수 등 9명의 연사의 기조강연

1) 글로벌 인적자원포럼은 교육인적자원부, 한국경제신문사,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내 최초의 인적자원 관련 국제포럼으로, 2006년 제1회 포럼에서 국내외 저명인사들의 참여를 이끌고 인적자원 관련 분야의 교류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성공적인 평가를 얻은 바 있음.
제3회 포럼은 2008년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이며 글로벌 포럼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.ghrforum.org 참조

- 대학, 기업, 정부 및 초국가의 관점으로 구성된 4개의 서로 다른 트랙별로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23개의 세션이 이틀에 걸쳐 진행됨.
- 이 밖에도 특별히 기업의 최고경영자, 인사담당 임원, 재무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3개의 조찬강연과 세계적 저명인사들과 국내 인사들이 함께하는 12개의 대담 프로그램이 개최됨.

□ 인적자원정책 동향지 인정(人政, HR Policy) 발간

-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내외 인적자원 동향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인적자원정책 동향지 ‘人政(HR Policy)’을 창간
 - 정책의 기획 및 조정에 필요한 인적자원관련 기초정보 제공, HRD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체계 마련 등 HRD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됨.
 - 격주(2, 4주 수요일) 단위로 발간되는 ‘인정’은 인적자원과 관련된 최신의 정책 · 연구 · 지역 동향과 해외동향을 소개하고, 정책현안과 관련 있는 이슈(issue) 분석과 함께 인적자원통계 자료를 제공
 - ‘인정’은 파일 형태로 정책고객과 각 부처 HRD 담당 공무원에게 e-mail로 발송되며, 일반 국민에게는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됨.

| 교육정책 동향 |

□ 2007 유·초·중등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²⁾

- 교육인적자원부는 ‘2007년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교육기본통계조사’ 결과(2007년 4월 1일 기준)를 발표(2007년 9월 13일 보도자료)
 - 각급학교와 16개 시·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학교, 학생, 교원, 시설 등의 조사결과를 수록하여 유·초·중등 교육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.
- 주요 결과
 - 학생 수는 감소하나, 학교 수와 교원 수는 증가하는 추세(학생 수 8,276천명, 학교 수 19,241개 교, 교원 수 429천명)
 - 학급당 학생 수 지속적으로 감소(유치원 22.7명, 초등학교 30.2명, 중학교 35.0명, 고등학교 33.0명)

2) 보다 자세한 통계 정보는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e.go.kr>)와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(<http://cesi.kedi.re.kr>)에서 확인할 수 있음.

이 밖에도 2007년 ‘평생교육기관통계 조사(10월 26일)’, ‘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(11월 19일)’, ‘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 조사(11월 20일)’가 발표되었으며,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.

- 교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,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(유치원 16.2명, 초등학교 22.9명, 중학교 19.1명, 고등학교 15.3명)
- 교원의 평균 연령 및 교감 이상 관리직 여교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
- 석·박사 학위 이상 학력 보유한 교원도 증가 지속(석사 26.2%, 박사 0.7%)
- 취학률은 완전 취학단계에 근접(초등학교 99.3%, 중학교 96.0%, 고등학교 91.0%)
- 진학률도 높은 비율을 유지(중학교 99.9%, 고등학교 99.6%, 고등교육기관 82.8%)

□ ‘미래교육 비전과 전략(교육비전 2030)’ 확정·발표

- 교육혁신위원회는 미래예측에 근거하여 한 세대 앞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개혁방안인 ‘미래교육 비전과 전략(교육비전 2030)’을 확정·발표함(2007년 10월 10일).
- ‘교육비전 2030’ 주요 내용
 - 저출산·고령화, 사회양극화, 세계화 심화 등 국내외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추진됨.
 - ‘희망과 신뢰의 학습사회 실현’이라는 비전 아래 ‘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유·초·중등교육’, ‘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’, ‘평생학습 생활화’, ‘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과 균형발전’을 4대 정책목표로 함.
 - 유아 무상교육 실시, 고령자 및 여성의 평생직업능력개발,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, 개도국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등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제안을 담고 있음.

□ 제2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(2008~2012) 발표

- 교육인적자원부는 전 국민의 평생학습력 신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생학습 추진 로드맵인 ‘제2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’ 발표(2007년 12월 5일)
 - 2002~2006년에 추진된 제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제2차 계획은 국내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실현하고, 국제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통용 가능한 교육·인증체제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함.
- 주요 내용
 - ‘배우는 즐거움, 일구어 가는 내일, 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’을 비전으로, 평생학습 기반을 공고히 하여 국민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2008~2012년까지 5년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주요 평생학습 정책 과제들을 제시

-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학습 전략과 평생학습 추진기관 · 추진내용의 수평적 · 수직적 연계를 고려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전략을 중점 추진전략으로 채택
- 생애단계별 창조적 학습자 육성,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관련 기관 참여 및 연계,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부문의 3대 과제 및 개인의 생애단계별 세분화 18개 주요과제 제시

표1. 개인 생애단계별 평생교육 중점 추진 내용

| 구분 | 성인 입문기 (20~24세) | 성인 전기 (25~39세) | 제1 생애 전환기 (40~44세) | 성인 중기 (45~54세) | 제2 생애 전환기 (55~59세) | 성인 후기 (60~69세) | 성인 완성 · 정리기 (70세~)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자 아 실 현 | • 생애설계 취업 · 진로 교육 | | • 제 2 인생설계 준비교육 | | • 은퇴 후 생애 설계 교육 | | • 생애 정리 교육 • 기본생활 적응 교육 |
| | | | • 노후 대비 교육 | | • 건강교육 (심리적위기 극복 및 노인 질환 대비 등) | • 노후 건강 관리 교육 | |
| 고 용 가 능 성 | • 직무기초능력 교육(팀워크, 리더십 교육 등) • 직업윤리교육 | • 직무능력 전문화 교육 | • 제 2 직업준비교육 창업 · 전직 · 전업준비 교육, 경력단절 여성 직업 교육 등 | | | • 노후 커리어 관리 교육 | |
| 사 회 적 포 용 | • 부모역할 교육 | • 부모역할 및 자녀교육 | • 가족갈등 해소 교육 (부부 간, 부모 · 자녀 간) | | | • 세대 간 통합교육 | |
| | | | • 지역사회 참여교육 및 사회봉사 활동 교육 | • 지역사회 참여 교육 | • 사회 봉사 활동 교육 | • 사회 관계 개선 교육 | |

자료: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(2007년 12월 5일).

□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인정을 위한 교육부 · 국방부 · 대학 간 MOU 체결

-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방부는 12개 대학³⁾과 ‘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을 위한 학 · 군 · 관 협약’을 체결(2007년 11월 8일)
 - 참여 기관들은 군 복무 중 장병들이 이수한 교육훈련 과정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함.
- 주요 내용
 - 군 복무로 휴학 중인 장병이 군내에 설치된 사이버지식정보방을 통해 소속 대학의 등록이 허용된 온라인 강좌를 수강, 1학기 3학점, 연간 6학점 범위

3) 협약체결 12개 대학: 강원대, 건양대, 경상대, 영남대, 원광대, 인하대, 전남대, 전북대, 제주대, 중앙대, 충남대, 영남이공대학

내에서 대학학점을 취득할 수 있음(2007년 2학기부터 6개 대학 55과목의 온라인 강좌 시범운영).

- 군 교육훈련 기관 교육과정 중 한국교육개발원(학점은행센터)의 평가·인정을 받은 과정 이수자는 과정당 2~3학점을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게 됨.

□ 2007 OECD 교육지표(Education at a glance) 결과 발표⁴⁾

-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는 ‘2007년 OECD 교육지표(Education at a glance ; EAG)’ 조사 결과를 발표(2007년 9월 18일)
 - OECD 교육지표는 총 36개국의 26개 지표가 4개 장(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, 교육에 투자된 재정·인적 자원, 교육기회에의 접근·참여·발달,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)에 나누어 소개됨.
- 주요 결과
 - 25~64세 고등학교 이수율은 76%로 OECD 국가 평균(68%)보다 높으며, 25~34세 청년층의 경우 97%로 OECD 최고 수준
 - 25~6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32%로서 OECD 국가 평균(26%)보다 높으며, 25~34세 청년층의 경우 51%로 캐나다(54%), 일본(53%)에 이어 3위를 차지
 - 25~64세 남성 취업률은 86%로 OECD 평균(82%)보다 높으나, 여성은 57%로 OECD 평균(63%)보다 낮음.
 -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.2%(정부부담률 4.4%, 민간부담률 2.8%)로 OECD 평균(5.7%)보다 높게 나타남.
 -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비율은 0.5%로서 OECD 국가평균(7.6%)보다 낮으며, 외국에서 유학 중인 한국 학생 중 57.8%는 미국에서, 23.4%는 일본에서 유학
 - 초·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,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OECD 수준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남.

□ 2008년 교육예산안 35조 4,866억 원 편성

- 교육인적자원부의 2008년도 예산 규모는 35조 4,866억 원으로 2007년 31조 2,841억 원보다 13.4%(4조 2,025억 원) 증가(정부예산 증가율은 10.4%)
 - 이는 2008년 정부 예산 규모(182.8조 원)의 19.4% 수준(2007년 정부예산 대비 18.9%)

4) 보다 자세한 정보는 OECD 홈페이지(<http://www.oecd.org>)와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(<http://cesi.kedi.re.kr>)에서 확인할 수 있음.

- 2008년 주요사업 지원 계획
 - 초·중등교육 내실화 및 교육력 제고 정책 지원
 - 고등교육 부문의 경쟁력강화 및 교육복지 재정 지원
 - 국가인적자원 정책의 종합정보관리 및 조사·분석·평가
 - 평생교육 학습체제 및 직업교육·산학협력 활성화 지원
 - 국제교육 교류 활성화 지원

□ **자녀의 학교생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확대**

-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 9월부터 실시한 ‘내 자녀 바로알기 나이스(NEIS) 학부모서비스’가 6종에서 26종으로 확대됨.
 -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는 자녀의 학교생활기록, 성적, 출결, 학교교육과정, 학교생활, 가정통신문, 진로·상담자료 등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온라인으로 상담도 할 수 있는 서비스

표2. 2007년 9월부터 나이스 서비스가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정보(26종)

| | |
|---------------|---|
| 학교정보(9종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교기본정보 • 교육과정 (과목 및 담당교사/ 반별시간표/ 주간학습) • 학사일정 (연간학사일정/ 월간학사일정) • 급식식단표 (월간식단/ 주간식단) • 가정통신문 |
| 학생정보(16종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교생활기록부 • 학습안내 (교외학습자료/ 교내학습자료) • 학교생활 (월출결통계/ 출결사항/ 자치활동조회/ 적응활동조회/ 행사활동조회/ 계발활동조회/ 봉사활동조회) • 성적 (고사별 정·오답표/ 성적통지표/ 표준점수분석표/ 성적변화표) • 진로/상담자료 • 건강기록부 |
| 학부모 상담 관리(1종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선생님과의 상담 |

자료: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(2007년 9월 14일).

▣ **교육비 동향**

□ **2007년 3/4분기 월평균 교육비, 전년 동기 대비 11.9% 증가**

- 2007년 3/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.2%(실질 7.7%) 증가한 238만 원으로 나타남.

○ 월 평균 교육비는 32만 8천 원(소비지출 대비 13.8%)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.9% 증가

표3.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총액 대비 교육비 지출

단위: 천 원, 전년 동기 대비, %

| 구 분 | 2006년 | | | 2007년 | | | | | |
|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|
| | 3/4분기 | | | 2/4분기 | | | 3/4분기 | | |
| | 금액 | 구성비 | 증감률 | 금액 | 구성비 | 증감률 | 금액 | 구성비 | 증감률 |
| 소비지출 | 2,160.6 | 100.0 | 0.4 | 2,225.8 | 100.0 | 5.3 | 2,380.4 | 100.0 | 10.2 |
| 실질 | 2,099.7 | - | -2.1 | 2,127.9 | - | 2.8 | 2,260.6 | - | 7.7 |
| 교육 | 325.5 | 9.5 | 6.6 | 224.4 | 10.1 | 11.9 | 328.2 | 13.8 | 11.9 |

주: 도시근로자가구 기준, 실질소비지출 = (소비지출)/(200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)×100.
 자료: 통계청, 「가계조사(가계수지)」, 각 호.

- 교육비 지출내역을 보면(도시근로자가구 기준) 납입금은 전년 동기 대비 6.1% 증가, 보충교육비는 17.5% 증가, 교재비는 5.4% 증가하였으나 문구류는 3.3% 감소
- 교육비 총액 중 보충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4.5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납입금이 41.7%로 그 뒤를 이음.

표4.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 내역 추이

단위: 천 원, 전년 동기 대비, %

| 구 분 | 2005년 3/4분기 | | | 2006년 3/4분기 | | | 2007년 3/4분기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|
| | 금액 | 구성비 | 증감률 | 금액 | 구성비 | 증감률 | 금액 | 구성비 | 증감률 |
| 교육비 총액 | 291.0 | 100.0 | 8.2 | 293.3 | 100.0 | 0.8 | 328.2 | 100.0 | 11.9 |
| - 납입금 | 119.7 | 41.1 | -0.1 | 128.9 | 43.9 | 7.7 | 136.8 | 41.7 | 6.1 |
| - 교재비 | 8.5 | 2.9 | -7.6 | 9.2 | 3.1 | 8.2 | 9.7 | 3.0 | 5.4 |
| - 보충교육비 | 159.9 | 54.9 | 17.1 | 152.2 | 51.9 | -4.8 | 178.9 | 54.5 | 17.5 |
| - 문구류 | 3.0 | 1.0 | -11.8 | 3.0 | 1.0 | 0.0 | 2.9 | 0.9 | -3.3 |

주: 도시근로자가구 기준,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.
 자료: 통계청 가계조사 DB(http://kosis.nso.go.kr).

- 자녀의 과외비를 나타내는 학원 및 개인교습비는 전년 동기 대비 17.8% 증가한 16만 3천 원, 기타 보충교육비는 전년 동기 대비 14.8% 증가한 1만 6천 원으로 나타남(도시근로자가구 기준).

표5. 보충교육비 지출 현황(3/4분기)

단위: 천 원, 전년 동기 대비, 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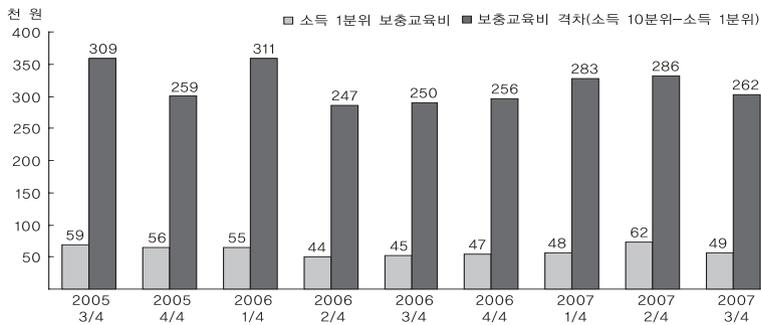
| 구 분 | 2005년 3/4분기 | | 2006년 3/4분기 | | 2007년 3/4분기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|
| | 금액 | 증감률 | 금액 | 증감률 | 금액 | 증감률 |
| 보충교육비 | 159.9 | 17.1 | 152.2 | -4.8 | 178.9 | 17.5 |
| - 학원 및 개인교습비 | 134.1 | 10.8 | 138.0 | 2.9 | 162.6 | 17.8 |
| - 기타 보충교육비 | 25.7 | 64.7 | 14.2 | -44.7 | 16.3 | 14.8 |

주: 도시근로자가구 기준.
 자료: 통계청, 가계조사 DB(http://kosis.nso.go.kr).

□ 소득 분위별 교육비 격차, 소득 최상위(10분위)가 최하위(1분위)의 약 4.9배

- 2007년 3/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최하위 10%(1분위) 계층의 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소비지출(111만 1천 원)의 9.4%인 10만 4천 원, 소득 최상위 10%(10분위) 계층은 월평균 소비지출 425만 6천 원의 13.6%인 57만 8천 원을 교육비로 지출함.
- 10분위와 1분위의 교육비 지출액 격차는 47만 4천 원으로, 10분위가 1분위보다 교육비 지출을 5.6배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분위별 보충교육비는 10분위 31만 천 원, 1분위 4만 9천 원으로 26만 2천 원의 격차를 보였으며(10분위가 1분위의 약 6.3배), 이는 전년 동기(25만 원) 대비 1만 2천 원 증가(4.8%)한 것임(그림 1).

그림 1. 소득 분위별 보충교육비 격차



주: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.
 자료: 통계청, 『가계조사(가계수지)』, 각 호.

□ 교육물가지수

- 2007년 11월 교육물가 지수는 112.2로 전월과 동일, 전년 동기 대비 6.0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(11월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월과 동일, 전년 동기 대비 3.5% 상승).

표 6. 교육물가지수 추이

(2005=100)

| 구분 | 2006 | | 2007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| 11 | 12 | 1 | 2 | 3 | 4 | 5 | 6 | 7 | 8 | 9 | 10 | 11 |
| 총 지수 | 102.3 | 102.6 | 102.8 | 103.5 | 104.1 | 104.5 | 104.6 | 104.6 | 105.0 | 105.1 | 105.7 | 105.9 | 105.9 |
| 교육 | 105.8 | 105.8 | 106.2 | 107.4 | 111.7 | 111.9 | 111.9 | 111.9 | 112.0 | 112.1 | 112.1 | 112.2 | 112.2 |

자료: 통계청, 소비자물가지수.